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6. 10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류나린, 주무관 홍창빈 • ☎ (044) 201-4207, 4215, 421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“부산-헬싱키” 노선 신설된다

- ☐ 김해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직항 운행하는 부산-헬싱키 노선이 처음으로 신설될 예정이다.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핀란드와 6월 10일 헬싱키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부산-헬싱키 노선을 주3회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.
 - 이번 항공회담은 한-핀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국과 핀란드 간에는 인천-헬싱키 노선만 주 7회 운항중이나 이번 항공회담으로 ‘20년 하계시즌 부터(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) 핀에어가 부산-헬싱키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다.
- ☐ 헬싱키는 한국 등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을 통하여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해 지난 3년간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‘18년에는 인천-헬싱키 노선의 탑승률이 90% 정도였다.

[인천-헬싱키 전체 최근 3년간 수송통계]

연도	공급석	전체여객		탑승률	환승	
		(명)	전년비(%)		(명)	환승률(%)
2016년	207,480	176,780	4.3%	85.2%	1,256	0.7%
2017년	230,186	199,461	12.8%	86.7%	1,344	0.7%
2018년	246,456	217,082	8.8%	88.1%	1,009	0.5%

- 부산-헬싱키 노선이 처음으로 신설되게 됨에 따라, 부산·경남 등 영남권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지 않고 직접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 후 유럽 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핀란드 항공회담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유럽노선이 신설되어 양국 간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남권 주민들의 여행 편의증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2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